

도경완, 주식 폭락 고백 "장윤정 따라잡으려다..."

등록 2026.05.31 00:00:00



[서울=뉴시스] 장윤정(왼쪽), 도경완 부부. (사진=티캐스트 E채널 제공) 2024.06.2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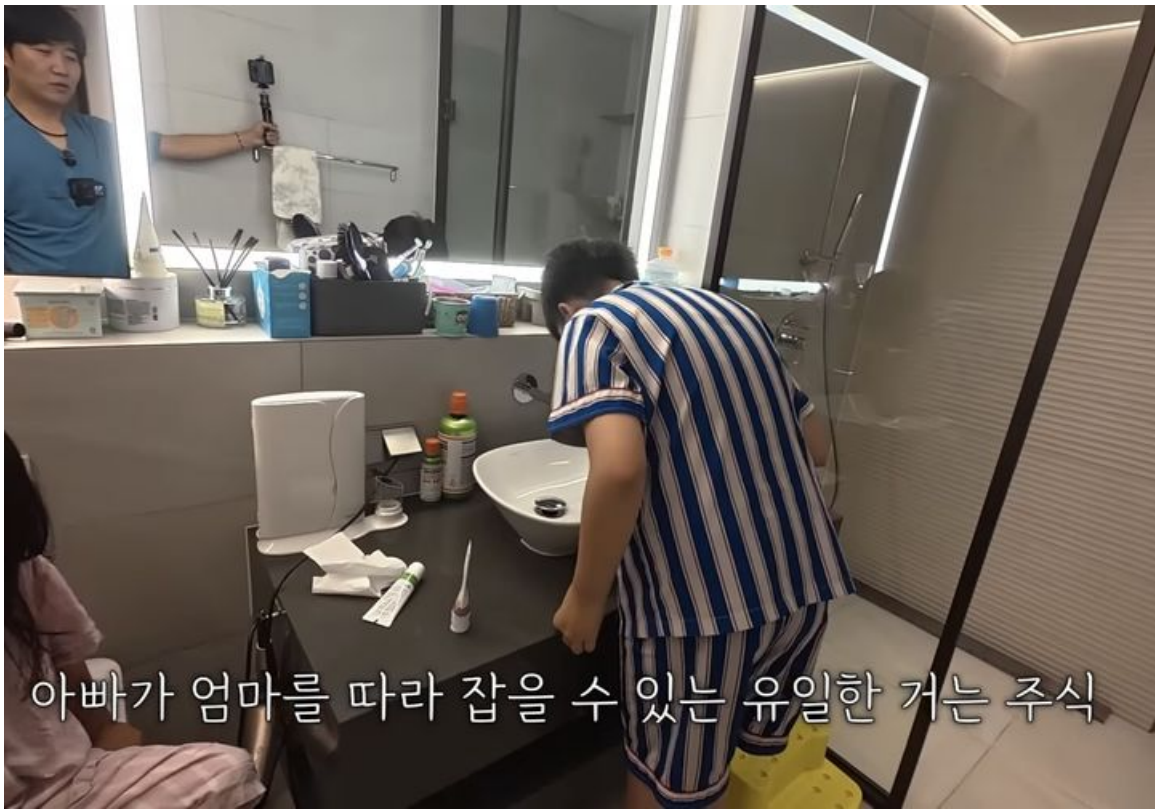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방송인 도경완이 주식 투자 폭락 사실을 고백했다.

도경완은 30일 유튜브 채널 '도장TV'에 공개된 영상에서 자녀 연우, 하영과의 일상을 공유했다.

이날 도경완은 딸 하영이 흔들리는 유치를 직접 뽑았다고 하자 "병원비를 아껴줬으니 그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다"고 너스레를 떨었다.

이어 이내 시무룩해진 얼굴로 "오늘 대폭락이다. 많이 샀는데 엄청 떨어졌다"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.

특히 도경완이 "아빠가 엄마(장윤정)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주식이었다"고 한탄하자, 아들 연우는 "따라잡을 생각 말고 엄마한테 얻을 생각을 하라"고 조언해 웃겼다.



[서울=뉴시스] 도경완. (사진 = 유튜브 캡처) 2026.05.3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도경완은 "부부간에도 막 줄 수 없다. 증여세라는 게 있다"고 답하며 현실적인 부부의 경제관을 덧붙였다.

2013년 결혼한 장윤정과 도경완은 2014년 연우를, 2018년 하영을 얻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